

P.I.R.A.M 국어 생각의 절정
LEET언어이해 선별집 6주차 해설지

6주차 <기출 유사 지문 - 수기치인>

2013LEET [13~15] 인문 '심통성정론' ☆☆☆☆

1문단

①인격 완성과 도덕적 실천을 중시한 **송대 유학자들에게 심(心)**은 중요한 철학적 문제였다. ②남송 시대의 주희는 심의 작용에 주목하여 **미발이발(未發已發)**과 **체용(體用)**의 논리를 근거로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을 제시했다. ③**미발**과 **이발**은 희로애락(喜怒哀樂)과 같은 **감정이 심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드러내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는 개념이다.** ④**체용**은 본체와 작용으로서, 동일한 사물의 서로 구별되지만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리킨다.

① #주장 제시 #카테고리 나누기

'송대 유학자들'은 인격 완성과 도덕적 실천을 모두 중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격 완성'과 '도덕적 실천'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겠죠? 이들에게 '심'은 중요한 철학적 문제였다고 해요. 이제부터 '심'을 바탕으로 '인격 완성'과 '도덕적 실천'에 대해 이야기하는 '송대 유학자들'의 주장을 체크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첫 문단의 첫 문장부터 많은 정보들이 제시되고 있으니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② #주장 제시 #화제의 틀

이 시기의 주희는 '심'의 작용에 주목하여 '미발이발'과 '체용'의 논리를 근거로 '심통성정론'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미발이발'과 '체용'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부터 파악해야 '심통성정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네요. 나아가, '미발이발+체용 → 심통성정론'이라는 '화제의 틀'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러한 틀에 맞춰서 정보를 처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③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먼저 '미발이발'은 희로애락과 같은 감정이 '심'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드러내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는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미발이발'과 '체용'은 모두 '심'의 작용에 주목한 개념이었는데, 이로부터 '심'이 감정을 드러내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작용의 시간적 이전과 이후가 각각 '미발', '이발'인 것입니다. 한자어에 익숙하다면, 감정이 '발'하지 않은 상황(未아닐 미)과 '발'한 상황(已이미 이)과 같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④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체용'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본체'와 '작용'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사물의 서로 구별되지만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리킨다고 해요. 이를 보고서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율곡의 수기치인' 관련 지문에 나온 '이기치요'를 떠올렸다면 아주 훌륭합니다. 해당 지문의 '이'와 '기'가 그랬듯이, '체'와 '용'도 구별되지만 나누어질 수는 없는 관계인 것이예요.

또한, '체용' 역시 '심'의 작용에 주목한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체'와 '용'은 모두 '심'의 본체와 작용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심'의 '본체'로부터 '감정 드러내기'와 같은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제와 엮고,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받아들여야 역지로 애쓰지 않고도 기억에 남길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긴 개념의 정의들은 뒷부분을 독해하고 선지를 판단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거예요.

하이라이트 문장

②남송 시대의 주희는 심의 작용에 주목하여 미발이발(未發已發)과 체용(體用)의 논리를 근거로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을 제시했다.

'주희'라는 사람의 핵심 주장을 통해 '화제의 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첫 문단에서 만들어주는 '화제의 틀'은 지문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를 확실하게 인식한 채로 읽어야 해요.

2문단

①주희는 일신의 주재자인 심에는 인식이 성립하는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미발**과 **이발**의 두 단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②그는 심을 이발로만 보던 관점을 극복하고, **지각 작용이 시작하기 이전이 미발 상태이며 그 이후가 이발이라고 보았다.** ③나아가 그는 감정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 심의 **본체와 작용**으로 각각 **성(性)**과 **정(情)**을 규정하고, 정은 성이 드러난 것이요 성은 정 의 근거라고 보았다. ④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하는 총체**라는 **심통성정론**을 구축했다.

① #주장 제시 #정의 제시 #재진술

다시 한번 '주희'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을 일신의 주재자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몸의 중심 역할을 하는 개념이니,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미발'과 '이발'을 '인식 성립 과정'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겠죠? 앞에서 이해한 바에 따르면 '미발'과 '이발'은 '감정 드러내기'를 기준으로 나뉘는 개념이었습니다. 즉, 이 지문에서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인식'이 성립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신의 주재자인 '심'은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인식'을 성립시키기도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 이전이 '미발'이고 이후가 '이발'인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해한 내용을 끌고 올 수 있어야 해요.

② #주장 제시 #정의 제시 #재진술

주희는 '심'을 '이발'로만 보던 관점을 극복했다고도 합니다. 이에 따르면 그전에는 '감정'이 드러나고 '인식'이 성립한 이후부터 '심'의 작용이 시작된다고 봤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죠? 주희는 '지각 작용'이 시작하기 이전이 '미발', 이후가 '이발'이라고 하며 '시각 이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심'의 외연을 확장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미발이발'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네요. 이로부터 '감정=인식=지각 작용'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각 단어들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셋 모두 결국 '심'으로 불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생각하며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인식=지각 작용'이라는 재진술 세트를 계속해서 사용하며 글을 읽어야 해요.

③ #주장 제시 #정의 제시 #재진술

여기에 주희는 '감정'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 '심'의 본체와 작용, 즉 '체'와 '용'으로 각각 '성'과 '정'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상'과 '정'이라는 개념이 규정되기 전에는 감정의 문제를 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야 해요. 주희 이전에 '심'은 그저 '이발'에 한정되어 있었고, 감정의 문제도 다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감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규정된 '성'과 '정'은 각각 '체'와 '용'의 대응어입니다. 나아가 '정'은 '성'이 드러난 것이요 '성'은 '정'의 근거라고 보면서 '체용'의 개념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립했네요.

④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결국 화제에 해당하는 정보인 '심통성정론'은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하는 총체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일신의 주재자인 '심'은 '감정=인식=지각 작용'을 드러내는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작용(=정)은 '심'의 본체(=성)가 근거가 되어 드러난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이 드러나기 전의 단계가 '미발', 드러난 이후의 단계가 '이발'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개념의 정의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주희의 '심통성정론'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화제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정보니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④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하는 총체라는 심통성정론을 구축했다.

앞에서 납득했던 재진술의 쌍을 바탕으로, 화제에 해당하는 핵심 정보인 '심통성정론'의 정의가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3문단

①심이 성과 정을 통괄한다는 것은 심이 성과 정을 겸하고 있다는 것과 심이 성과 정을 각각 주재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감정이 드러나기 이전에 심은 성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주재하고, 감정이 드러나는 단계에서 심은 정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주재하여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③주희는 인간이 천리(天理)와 일치하는 순선무악한 천명지성(天命之性)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라는 기(氣)의 요인을 가진 기질지성(氣質之性)을 타고났다고 보았다. ④천명지성은 도덕의 근거이지만, 기질지성은 주어진 청탁후박(淸濁厚薄)의 기질적 차이로 이익의 추구나 감각적 욕구에 빠져 드는 악한 감정의 뿌리가 된다. ⑤기질지성은 성(性)이라는 면에서는 이(理)의 성격을 지니지만 기질이라는 면에서는 기(氣)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⑥그렇다고 해서 기질지성이 천명지성과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⑦주희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인간의 본성이 필연적으로 기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이다. ⑧즉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질지성을 변화시켜 천명지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② #주장 제시 #재진술

'심통성정론'은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이는 '심'이 '성'과 '정'을 겸하고 있다는 것과 '성'과 '정'을 각각 주재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심'이 '성'과 '정'을 겸한다는 것은 '체'와 '용'이 서로 구별되지만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나아가 '심'이 '성'과 '정'을 주재한다는 것 역시 통괄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 같은 말임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감정이 드러나기 이전, 즉 '미발' 단계에서 '심'은 '성'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주재하고, 감정이 드러나는 단계, 즉 '이발' 단계에서 '심'은 '정'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주재하여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문단에 따르면, 이렇게 '인격 완성'(성'의 유지)과 '도덕적 실천'(정'의 발현)을 중시한 이들이 바로 주희와 같은 송대 유학자들이었어. 이처럼 앞의 내용과 엮으면서, 다 똑같은 말이라는 생각을 하며 정보량을 줄여내야 합니다.

③~⑥ #주장 제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주희는 인간이 '천명지성'을 하늘로부터 부여(천명)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라는 '기'의 요인을 가진 '기질지성'을 타고났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성, 즉 '성'에 해당하는 것들이기에, '심'이 '미발' 단계에서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주재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며 앞의 내용과 엮어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이 중에서 '천명지성'은 도덕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기질지성'은 악한 감정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기질지성'은 '성'이라는 면에서는 '이'의 성격을 지니지만, 어쨌든 '기질'이라는 면에서는 '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와 '기'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율곡의 수기치인' 지문을 비롯한 여러 지문들에서 경험했던 개념들이나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는 천리와 일치하는 순선무악한 개념인 '천명지성'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질지성'과 '천명지성'이 아예 별도로 존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와 '기'의 관계처럼 말이죠!

⑦~⑧ #주장 제시 #재진술

주희는 '천명지성'과 '기질지성'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인간의 본성(천명지성)이 필연적으로 기질(기질지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발' 단계에서 '심'이 '정'을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주재하여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게 하려면, '기질지성'을 변화시켜 '천명지성'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도 언급한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율곡의 수기치인' 관련 지문의 '기질변화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며 읽으면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예요.

하이라이트 문장

⑧즉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질지성을 변화시켜 천명지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진 것 같지만, 결국 이 한마디를 위해서 존재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앞 문단에서부터 정리한 내용들과 엮어서, 이 한마디를 완벽하게 납득해야 합니다. 이 지문에서 정보량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잘못 읽은 거예요.

4문단

①심통성정론은 기질지성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본성을 발휘하여 도덕적 감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답하기 위한 주희의 해결책이다. ②심은 정이 드러나기 이전 단계에서 자신의 본체이기도 한 성을 어떻게 주재할 것인가? ③주희가 이러한 난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은 경(敬)을 통한 품성의 함양이었다. ④경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상성성(常惺惺)과 엄숙한 자세인 정제엄숙(整齊嚴肅) 등의 방식으로 흐트러지기 쉬운 심을 한곳에 잡아 두는 것이다. ⑤예법의 준수와 용모의 단정 등과 같은 행위 또한 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에 들어가는 방도로 인정된다. ⑥품성을 함양하는 경의 단계는 심이 미발일 때이며, 이발일 때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단계이다. ⑦격물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태에 나아가 하나씩 원리를 궁구해 가는 과정이며, 치지는 이러한 탐구를 통해 집진적으로 학습한 원리가 보편

적 원리와 일치함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다. ⑧누적된 지식은 비약적으로 확장하여 만물의 원리를 일관하는 천리와 합일한다. ⑨심(性)의 원리인 성이 천리와 합일하는 것이 주희가 제시한 성즉리(性卽理)의 철학이었다. ⑩이처럼 주희는 미발일 때의 함양과 이발일 때의 격물이라는 수양론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실천은 이러한 수양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①~② #주장 제시 #재진술

결국 '심통성정론'은 '기질지성'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본성, 즉 '천명지성'을 발휘하여 '이발' 단계에서 '심'이 '경'이라는 도덕적 감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답하기 위한 주희의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이 '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발' 단계에서 자신의 본'체인 '성'을 주재해야 하죠? 앞에서 했던 말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할 것 같습니다.

③~⑤ #정의 제시 #재진술

주희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경'을 통한 품성의 함양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경'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상성성'과 엄숙한 자세인 '경제엄숙' 등의 방식으로 흐르러지기 쉬운 '심'을 한곳에 잡아두는 것이예요. '상성성', '경제엄숙'과 같은 미시적인 개념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경=심을 한곳에 잡아두는 것'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상성성'과 '경제엄숙'의 정의, 나아가 예법의 준수나 용모의 단정 같은 행위 모두 이 도식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나아가 '경'은 '심'이 '성'을 주재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곳에 잡혀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비로소 '기질지성'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개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납득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⑥~⑧ #정의 제시 #재진술

이러한 '경'은 품성을 함양하는 단계인데, 이는 '심'이 '미발'일 때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심'이 '이발'일 때는 '격물치지'의 단계라고 하네요. '격물'은 구체적인 사물·사태에 나아가 하나씩 원리를 궁구해 가는 과정이며, '치지'는 이렇게 학습한 원리가 보편적 원리와 일치함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격물치지'는 곧 공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개념의 정의를 능동적으로(본인만의 말로 바꿔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여 누적된 지식은 만물의 원리를 한결같이 추구하는 '천리'와 합일한다고 해요. '천리'가 3문단에서도 제시되었던 '진짜로' 같은 말임을 생각하고 그 내용을 끌고 오면, 이러한 공부가 곧 '천명지성'의 발현을 이끌어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⑨~⑩ #주장 제시 #재진술

이처럼 '심'의 원리인 '성'이 천리와 합일하는 것이 주희가 제시한 '성즉리'의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주희는 '미발'일 때의 '경'을 통한 함양과 '이발'일 때의 '격물'을 통한 수양을 거치면 사회적 실천, 즉 도덕적 행위가 가능해질 것이라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재진술의 쌍을 이용해서 다시 정리해볼까요? '경'과 '격물치지'를 통해 '성'을 잘 보존하고 '기질지성'을 변화시켜야, '이발' 단계에서 '경'이 올바르게 드러나 도덕적 행위라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량이 정말 많아 보였지만, 결국 다 같은 말만 하고 있었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⑩이처럼 주희는 미발일 때의 함양과 이발일 때의 격물이라는 수양론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실천은 이러한 수양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들의 반복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5문단

①주희가 제시한 격물의 대상은 조수초목(鳥獸草木)과 윤상규범(倫常規範)에 이르기까지 광범하였지만, 그 방법은 주로 성현이 이미 원리를 기록해 둔 경전의 학습이었다. ②주희의 격물론은 도덕의 원리를 탐구하는 지적인 과정이고 최종의 목표는 인격 완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미발 단계에 설정해 두었던 함양 공부를 이발 단계의 공부에까지 확장하여 수양론을 완성했다. ③주희의 철학은 심성에 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천리에 따르는 인간의 길을 제시했고, 명리(名利)를 쫓아가는 세상을 도덕적 사회로 바꾸고자 했다.

①~③ #주장 제시 #재진술

주희가 제시한 '격물', 즉 공부의 대상은 조수초목과 같은 자연에서 윤상규범과 같은 도덕 규범까지 광범하였지만, 그 방법은 주로 경전의 학습이었다고 합니다. '격물'을 공부로 이해한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고 있죠? 주희의 격물론은 경전의 학습을 통해 도덕의 원리를 탐구하는 지적인 과정이고 최종의 목표는 '인격 완성'이었습니다. (화제 그 자체) 따라서 그는 '미발' 단계에 설정해 두었던 함양 공부, 즉 '경'을 '이발' 단계의 공부, 즉 '격물'에까지 확장하여 수양론을 완성한 것이죠. '심'이 감정을 드러낸 이후에도 계속해서 품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희는 천리에 따르는 인간의 길을 제시했고, 명리를 쫓아가는 세상을 도덕적 사회로 바꾸고자 한 인물이었네요.

13. ㉠에 대한 이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

- 이 지문의 화제 그 자체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용일치 문제와 다름없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볍게 해결해 봅시다.

①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은 희로애락의 본성에서 나온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정은 성이 드러난 것이지.
해설	감'정'이라는 '작용'은 본'성'이라는 '본체'가 드러난 것이라는 점이 '심통성정론'의 핵심이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성'과 '정'의 대응어인 '체'와 '용'은 서로 구별되지만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이죠.

② 회로애락의 본성은 체이고 회로애락이라는 감정은 용이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성은 체고 정은 용이지.
해설	'성=체', '정=용'이었습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이들이 결국 같은 말임을 인식했어야 해요.

③ 기질지성으로부터 나오는 회로애락이라는 감정은 순선하지 않다.

명시적 근거	3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질지성은 악한 감정의 뿌리였지.
해설	'기질지성'은 주어진 청탁후박의 기질적 차이로 이익의 추구나 감각적 욕구에 빠져 드는 악한 감정의 뿌리가 되기에, 이를 변화시켜 '천명지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주희의 수양론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질지성'이라는 '성'으로부터 나오는 회로애락이라는 감정은 순선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질지성'의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는지, 나아가 이를 통해 화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선지네요.

④ 심이 미발일 때 회로애락의 본성은 본래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순선무악한 본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지.
해설	'회로애락'은 감정을 말하는데, 이러한 감정의 본성은 '천명지성'과 '기질지성' 같은 '성'이었습니다. '심'은 '미발' 단계에서 본래부터 갖고 있는 '성'을 주재한다는 것이 '심통성정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회로애락의 본성이 본래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은 '심통성정론'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죠. '천명지성'이라는 순선무악한 본래의 상태를 지키기 위해 '기질지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희의 핵심 주장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선지였어요.

⑤ 이발 상태의 심은 회로애락이라는 감정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주재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감정이 드러나는 '이발' 단계에서 '심'은 회로애락과 같은 감정이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주재하여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확실하게 납득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14. 주희의 수양론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②

- 이번에도 '주희'의 주장을 묻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양론'에 대해 묻고 있으니, '경'과 '격물치지'를 통해 '심'의 원리인 '성'이 '천리'와 합일해야 한다는 내용을 떠올려야겠지요? 이와 같은 생각을 한 채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① 행동거지는 마음의 발현이므로 윤리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고자 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행동거지? 용모 단정 이런 거 말하는 건가? 이것도 경에 들어가는 방도였지.
해설	선지에서 묻는 '행동거지'라는 말이 지문에 명시되지 않았기에, 어떤 내용의 재진술인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지문에서 '행동'과 관련된 것은 '용모'의 단정 등과 같은 행위밖에 없었습니다. '경'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체크하면서 일종의 사례로 확인했던 내용이니 충분히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주희는 '경'을 통한 품성의 함양 방법으로 예법의 준수와 용모의 단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모두 '심'을 한곳에 잡아 두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하면, 주희는 예법의 준수나 용모 같은 행동거지가 '심'이라는 마음의 발현이므로 예법과 같은 윤리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경'과 관련된 경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해야 할 생각을 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였어요.

② 사회적 실천을 우선시하면서 경을 통해 경전을 학습하여 진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10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수양이 전제되어야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지.
해설	주희의 수양론은 '미발' 단계에서의 '경'을 통한 함양과 '이발' 단계에서의 경전 학습을 통한 '격물치지'를 통해 '심'의 원리인 '성'이 천리와 합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희는 이러한 수양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수양을 통해 '심'이 '성'을 잘 유지해야 비로소 '정'을 드러내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고, 그 경점이 4문단 10번 문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는 선지였어요.

③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데에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므로 품성의 도야에 힘쓰고자 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7번 문장, 5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격물에서도 함양 공부가 중요하다고 했지.

해설	선지에서 묻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곧 공부를 하는 과정이고, 이는 '격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주희는 '격물'을 진행하는 '이발'의 단계에서도 품성의 도야를 위해 함양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수양론을 완성했죠?
----	--

- ④ 타고난 마음의 선한 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자 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1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경과 관련된 건데, 정확히 뭐더라? 암튼 맞지 뭐.
해설	주희는 타고난 마음의 선한 뿌리로 '천명지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기질지성'을 변화시켜 이를 보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를 위해서는 '경'을 통한 품성의 함양이 필요했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상성성'이었습니다. '상성성'이라는 말을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깨어 있다=심을 한곳에 잡아 둔다'와 같은 생각을 통해 '경'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설명하면, 애초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주희의 주장 그 자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당연히 맞을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 ⑤ 자연 및 사회 현상의 원리에 대한 탐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덕 원리의 파악에 이르고자 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주희가 제시한 '격물'의 대상은 조수초목 같은 자연부터 윤상 규범이라는 사회 현상까지 광범하였습니다. '격물'은 원리를 궁구해 가는 과정이었는데, 주희는 이를 통해 인격 완성을 이루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죠? 결국 인격 완성을 위해 도덕 원리의 파악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주희의 수양론 그 자체였습니다. 가볍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해요.

15. 윗글에 따라 때, 주희의 문제의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④

- 마지막까지 주희의 주장을 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문 지문에서 물어볼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주장'밖에 없습니다. 이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묻는 형태네요.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 ① 경전 학습이 도덕적 인간에 이르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명시적 근거	5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공부해야지.

해설	주희는 '격물'의 방법으로 경전의 학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격 완성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것이었죠?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처럼 생각하면서 가볍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	---

- ② 인간이 악한 행동이나 나쁜 감정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명시적 근거	3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질지성!
해설	바로 '기질지성'이 떠올라야 합니다. 주희는 인간의 본성이 필연적으로 악한 감정의 뿌리인 '기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변화시켜 '천명지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 ③ 세상 만물을 관통하는 근본적 원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명시적 근거	4문단 7번~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공부해야지.
해설	주희가 제시한 원리 탐구의 방법은 '격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격물'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습한 원리가 보편적 원리, 즉 세상 만물을 관통하는 근본적 원리와 일치함을 깨달아가는 '치지'의 단계로 나아가 수 있다고 했어요.

- ④ 천리와 인도의 위상을 바꾸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명시적 근거	4문단 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천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주체적인 삶은 또 뭐야.
해설	주희가 제시한 '성즉리'의 철학은 천리와 합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천리와 합일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수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리와 인도의 위상을 바꾼다는 것은 주희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없죠. 나아가 주희는 주체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선지를 보자마자 헛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 ⑤ 이익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세상을 어떻게 도덕적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명시적 근거	5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명리를 좇아가는 세상을 바꾸려 했지.
해설	주희는 명리를 좇아가는 세상을 도덕적 사회로 바꾸고자 '심통성정론'이라는 철학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집중해서 읽어야 이런 선지를 빠르게 지워낼 수 있어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정보량이 정말 많아 보였지만,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미발이발 +체용→심통성정론'이라는 하나의 화제의 틀만 반복되는 지문이었습니다. 나아가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울곡의 수기치인' 지문의 내용과 여러모로 상당히 유사한 지문이었어요. 해당 지문과 엮어서 확실하게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6주차 <경제 제재의 지문 읽기>

2025LEET [16~18] 사회(경제) '솔로우 성장모형' ☆☆☆☆

1문단

①한 사회의 소비나 인프라 수준은 생산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의 장기적인 변동으로 정의되는 경제성장은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의 중요한 관심 사항이다. ②솔로우 성장모형은 저축과 인구의 변동, 기술의 진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산과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대표적인 성장모형이다. ③인구와 기술 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생산량(y)은 자본량(k)의 증가 함수이다. ④단, 자본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산이 늘어나는 정도는 자본 수준이 높아질수록 작아진다고 가정한다. ⑤자본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생산은 소비(c)나 자본재 구입을 위한 투자(i)로 사용될 수 있다. ⑥따라서 '생산량 = 소비량 + 투자량'의 관계가 언제나 성립한다.

① #화제 제시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한 사회의 소비나 인프라 수준은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일단 생산을 충분히 해야 그에 맞춰 소비하고 인프라를 갖출 수 있을 테니까요. 이에 '생산 능력의 장기적인 변동'으로 '경제성장'을 정의한다고 합니다. 생산 능력의 성장이 곧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이니, 당연히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정의를 체크하면서 그 내용을 당연히 납득하고, '생산 능력의 변동'이라는 화제를 인식한 채로 계속 읽어봅시다.

②~④ #정의 제시 #재진술

'솔로우 성장모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축과 인구 변동, 기술 진보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산과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동태적(시간의 흐름에 따라)으로 분석하는 모형이라고 해요. 그 정의를 봤을 때는 매우 복잡해보이는데, 다행히도 3번 문장에서 '단순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생산량'은 '자본량'의 증가 함수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결국 '자본량'이 많아질수록 '생산량'도 증가한다는 이야기기를 알 수 있겠지요? 단, 그 정도는 자본 수준이 높아질수록 작아진다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로그함수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생산 능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⑤~⑥ #정의 제시 #재진술 #고정값

이렇게 자본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은 '소비'나 '투자'에 쓰입니다. 이에 '생산량=소비량+투자량'의 관계가 언제나 성립한다고 해요. 생각해 보면, 생산한 것은 소비를 하든 투자를 하든 할 수밖에 없지요? 생산물을 불태워 버리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납득하면서, 이 식이 일종의 '고정값'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또 활용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인식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인구와 기술 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생산량(y)은 자본량(k)의 증가 함수이다.

'증가 함수'와 같은 말에 현혹되지 않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정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 정의를 납득하는 것도 중요해요. 첫 문단에서부터 제시된 개념의 정의는 당연히 중요하게 쓰일 수밖에 없으니, 확실하게 체크하고 가야 합니다.

2문단

①생산에서 소비하지 않고 남은 부분, 즉 저축이 투자의 재원이 되므로 투자와 저축은 언제나 일치한다. ②저축률(s)은 저축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상수이다. ③감가상각은 자본 사용 정도에 비례하여 자본재의 일부가 마모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감가상각률은 자본량과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상수인 감가상각률(d)의 곱으로 결정된다. ④생산량을 비롯하여 저축량, 감가상각량, 투자량 등은 총량을 고정된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개념이다.

① #고정값 #재진술

'생산량'은 '소비량'과 '투자량'의 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비하지 않고 남은 부분은 곧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저축'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는 저축이 투자의 재원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투자'와 '저축'은 언제나 일치한다는 '고정값'을 끌어낼 수 있네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지요?

②~③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저축률'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저축'의 비율입니다. '저축'은 곧 '생산'에서 '소비'를 뺀 것인데, 이에 '저축률'이 '저축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는 건 당연히 납득할 수 있겠네요. 비율이니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것도 당연하구요.

한편, '감가상각'은 자본 사용 정도에 비례하여 자본재의 일부가 마모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연필과 같은 작은 물건부터 자동차 같은 물건까지 모두 많이 사용할수록 점점 마모되어 가치가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감가상각률'은 자본량에 감가상각률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진 자본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마모되는지를 구하면 당연히 얼마나 많이 감가상각되었는지 알 수 있겠지요.

④ #정의 제시 #화제의 흐름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개념들은 모두 '1인당 개념'이라고 합니다. 국가 전체, 경제 체제 전체의 큰 단위로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관점에서도 '생산량=소비량+투자량', '저축률', '감가상각률' 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볍게 정리해봅시다.

나아가, 이러한 개념의 정의들은 모두 어떠한 화제를 이해하기 위한 빌드업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뒤에 나올 진짜 중요한 정보들을 이해할 준비를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생산에서 소비하지 않고 남은 부분, 즉 저축이 투자의 재원이 되므로 투자와 저축은 언제나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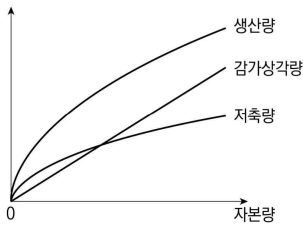
앞 문단에서 체크한 '고정값'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온 것 같지만, 결국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예요.

3~4문단

①솔로우 성장모형에 따르면 자본량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Delta k = i - dk$$

①여기서 Δ 는 경제 변수가 전기 대비 변동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②이 식은 자본량의 변동 방향을 결정하는 두 요인을 설명하는데, 신규 투자는 자본량을 늘리는 반면 감가상각은 자본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③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생산량, 저축량, 감가상각량은 다음 <그림>과 같이 궁극적으로 자본량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① #정의 제시 #재진술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이야기하는 ‘자본량의 변동’을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바를 바탕으로 이 식을 이해해야 해요. 기호로 두면 조금 헛갈리니, 다시 정리해봅시다. 이 식은 결국 ‘자본량의 변동=투자(저축)-감가상각량’입니다. dk 는 ‘감가상각률×자본량’이니, ‘감가상각량’으로 바뀌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①~③ #정의 제시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그렇다면 이 식을 납득해봅시다. 신규 ‘투자’는 자본량을 늘리지만, ‘감가상각’은 자본량을 줄입니다. 이에 늘어나는 양에서 줄어드는 양을 빼면 얼마나 변동했는지 나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생산량’, ‘저축량’, ‘감가상각량’은 ‘자본량’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1문단과 2문단에서 충분히 설명했던 내용이니 가볍게 납득할 수 있겠죠? 특히 ‘생산량’은 ‘자본량’이 많아질수록 그 상승폭이 둔화된다는 점, ‘감가상각량’은 정해진 비율인 ‘감가상각률’을 곱해서 구하는 것이니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축량’은 ‘생산량’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값이라는 점도 체크해주셔야 하구요.

마지막으로, 3문단의 내용까지도 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축량’(=투자량)과 ‘감가상각량’이 만나는 지점까지는 ‘저축량’이 ‘감가상각량’에 비해 많기 때문에 ‘자본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교차점의 오른쪽에서는 ‘감가상각량’이 ‘저축량’보다 많기 때문에, 결국 조만간 ‘자본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겠네요. ‘자본량 변동’이 음수이니깐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 그래프를 최대한 활용하며 앞에서 설명한 원리를 납득하셔야 합니다. 그림이 제시되면 일종의 사례처럼 이해한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생산량, 저축량, 감가상각량은 다음 <그림>과 같이 궁극적으로 자본량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단순히 자본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해당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납득해야 합니다.

5문단

①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중요한 개념인 ‘**정태상태**’는 투자량과 감가상각량이 정확하게 일치하여 자본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②자본량의 변동이 없으므로 생산량의 변동도 없고 저축과 소비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③정태상태에 있지 않은 경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태상태로 이동하는 특성을 갖는다. ④예를 들어, 만약 투자량이 감가상각량을 상회하고 있다면 <식>에 의해 자본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⑤자본량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의 일정 비율인 투자도 증가한다. ⑥또한 자본량의 일정 비율인 감가상각량도 늘어난다. ⑦다만, 감가상각량의 증가 속도는 자본량의 변화 속도와 언제나 같은 반면 투자량의 증가 속도는 차츰 감소하는데, 이는 자본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⑧이러한 원리로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투자량과 감가상각량이 같아지면서 경제가 정태상태에 도달하게 되며, 이후에 다른 외생적인 변화가 없다면 경제는 이 정태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⑨경제가 도달하는 정태상태 자본량은 각 경제의 기초조건인 저축률 및 감가상각률 수준과 생산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①~② #정의 제시 #재진술

‘솔로우 성장모형’에서는 ‘정태상태’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량’과 ‘감가상각량’이 정확하게 일치하여 ‘자본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해요. 앞에서 본 <그림>에서 ‘저축량’과 ‘감가상각량’이 교차하는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상황이 되면 당연히 자본량의 변동이 없고, 이에 생산량과 이를 이루는 저축·소비량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겠네요.

③~⑧ #정의 제시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정태상태’에 있지 않은 경제라고 해도 결국에는 ‘정태상태’로 이동한다는 것이 ‘솔로우 성장모형’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했는지, 예를 들어 주고 있어요. ‘투자량’이 ‘감가상각량’을 상회하는 상황, 즉 <그림>의 교차점 왼쪽의 상황에서는 <식>에 의해 자본량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그림>과 같이 생산량과 투자(=저축) 모두 증가해요. 여기에 ‘자본량’에 비례하는 값인 ‘감가상각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하지만 역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고 앞서 납득했듯이 자본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에 그 생산의 일부인 ‘투자’가 늘어나는 속도도 줄어들고, 결국 일정하게 증가하는 값인 ‘감가상각량’에 따라잡혀 <그림> 속 교차점(=정태상태)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어느 시점이 되면 경제가 ‘정태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예요.

생각 심화

이번엔 지문에서 들어준 사례와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감가상각량’이 ‘투자량’을 상회하는 상황은 어떨까요? 이 경우는 자본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같은 메커니즘으로 교차점(=정태상태)에 도달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어떻게 보든 결국 ‘정태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납득해야 해요.

⑨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이러한 '정태상태 자본량', 즉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자본량은 저축률 및 감가상각률 수준, 그리고 생산함수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저축률이나 감가상각률은 당연히 납득할 수 있겠지요? 이 수치에 따라 '정태상태'를 결정하는 두 요소인 '저축률'과 '감가상각률'이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한편 '생산함수'라는 개념은 처음 나온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생산'량을 구하는 '함수'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저축률'은 결국 생산과 관련된 것이기에, '생산함수'가 '정태상태 자본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⑧이러한 원리로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투자량과 감가상각률이 같아지면서 경제가 정태상태에 도달하게 되며, 이후에 다른 외생적인 변화가 없다면 경제는 이 정태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앞에서 했던 말들의 재진술에 불과해요. '정태상태'라는 개념이 마냥 새롭게 느껴졌다면 독해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6문단

①솔로우 성장모형에서는 소비가 최대가 되는 정태상태 자본량 수준을 최선의 자본량이라는 의미에서 **황금률 자본량**이라고 부른다. ②생산함수와 감가상각률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저축률 변동을 통해 경제가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을 달성하거나 또는 황금률에 보다 가까운 수준의 자본량을 보유하도록 경제상태를 이동시킬 수 있다. ③예를 들어, 정태상태에 있는 어느 경제의 자본량이 황금률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축률을 상승시키는 경제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하자. ④정책이 시행된 시점에는 저축률 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즉각 줄어든다. 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와 자본량 증대가 생산 수준을 점차 더 높게 된다. ⑥따라서 생산의 일정 비율인 소비도 점차 증가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책 변경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⑦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새로운 정태상태에서 미래 세대는 정책 변경이 없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소비를 누릴 수 있으므로 효용이 증가한다. ⑧반면 현재 세대, 특히 기대 잔여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에는 미래 시점에서의 소비 증가 혜택을 얻을 가능성은 낮으나 현재의 소비 감소로 인한 효용 감소는 분명하므로 청년층에 비해 **이와 같은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①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솔로우 성장모형'에서는 이러한 '정태상태 자본량' 중에서, 소비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최선의 자본량 수준으로 보고, '황금률 자본량'으로 칭한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황금'과 같이 최선의 상태를 만족하는 '자본량'이라는 의미겠지요? 소비가 최대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최대한의 효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기에, 이를 '황금률'로 부르는 것이 그리 어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② #정의 제시 #재진술

'생산함수와 '감가상각률'이 고정된 상황에서는 나머지 변수인 '저축률'

상장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변동을 통해 경제상태가 '황금률 자본량'에 가까워지도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죠? '정태상태 자본량'을 결정하는 세 요소 중 두 요소가 고정되어 있으니, 나머지 한 요소인 '저축률'을 통해 '정태상태 자본량'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앞에서 이해한 내용을 끌고 오며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③~⑥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이번에도 예를 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본량이 '황금률 자본량'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저축률'을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시행되면, 즉각적으로는 소비가 줄어듭니다. 즉, 오히려 '황금률 자본량'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축이 투자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자본량이 증가하고, 이것이 생산 수준을 점차 더 높게 돼요. 앞에서 이해한 내용 그대로죠? 이렇게 생산량 자체가 증가하면 그 일부인 '소비'도 점차 증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 변경 이전보다 높은 수준, 즉 '황금률 자본량'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⑦~⑧ #재진술 #비교/대조

이렇게 되면, 소비 수준이 증가한 새로운 '정태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정책 변경이 없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소비를 누린다는 것이고, 이는 '효용 증가'로 이어지겠죠. 반면 현재 세대,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는 당장 자신이 살아 있을 때의 소비 감소로 인한 효용 감소가 분명하게 됩니다. 이에 이와 같은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⑥따라서 생산의 일정 비율인 소비도 점차 증가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책 변경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 문단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앞에서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1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① 생산함수는 정태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5문단 9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정태상태 자본량 결정의 세 요인 중 하나였는데?
해설	'생산함수'는 '저축률', '감가상각률'과 함께 '정태상태 자본량'을 결정하는 세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5문단을 읽으면서도 납득했던 내용이고, '황금률 자본량'과 관련된 내용을 납득하면서도 한 번 더 인식했던 내용이기도 했죠? 가볍게 답으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② 투자와 감가상각이 다르다면 자본량은 변동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자본량의 변동=투자-감가상각량'이었습니다. 투자와 감가상각이 다르다면 자본량은 증가하든 감소하든 변동하겠죠.

③ 자본량이 늘어나면 생산량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대전제였지.
해설	1문단에서부터,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생산량은 자본량의 증가 함수였습니다. 이 내용을 뒷부분을 이해하는 데에도 계속해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죠? 정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합니다.

④ 저축이 투자를 상회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할 수 없다.

명시적 근거	2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축=투자잖아.
해설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저축=투자'였습니다. 이는 일종의 '고정값'으로, 확실하게 체크하고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도 계속 사용했던 내용이죠? 둘이 애초에 같은 개념이니, 저축이 투자를 상회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할 수 없겠죠.

⑤ 자본이 한 단계 증가할 때 생산 증가의 폭은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명시적 근거	1문단 4번 문장,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로그함수!
해설	'로그함수'를 떠올리며 납득했던 내용입니다. 1문단에서도 납득했고, <그림>을 보면서도 한 번 더 확인했던 내용이죠. '정태상태 자본량'이라는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으니,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있었어야 해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17. 윗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① 저축률을 비롯한 기초여건은 동일하지만 초기 생산량이 다른 두 국가 경제는 소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1문단 6번 문장, 5문단 3번 문장, 5문단 9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초여건이 같으면 결국 같은 자본량으로 수렴할 텐데?
해설	지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어려운 선지입니다. 선지에서 묻는 것은 '기초여건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때 '기초여건'이라는 말은 곧 '정태상태 자본량'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겠죠? 이 기초여건이 동일하다면, 결국 두 국가의 경제는 동일한 '정태상태 자본량'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즉, 처음의 생산량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같은 자본력으로 수렴되기에, 이 자본력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량 역시 같아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본량에 의해 결정되는 투자량도 같아질 것이기에, 생산량에서 투자량을 뺀 소비량 역시 같아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결국 두 국가 경제의 소비 격차가 좁혀지기는 하겠네요. 이와 같이 선지에서 묻는 것을 따지고, 이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요구한 선지입니다. 수능에 나오는 어려운 선지와도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정확히 점검해 보세요.

② 저축률을 변경시키는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는 세대 간 기대 잔여 수명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명시적 근거	6문단 7번~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노년층은 저축률 상승 싫어할 거라고 했지.
해설	저축률을 변경시키는 정책은 당장의 효과와 미래에 기대되는 효과가 서로 상충됩니다. 이에 잔여 수명이 적어 미래에 기대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노년층은 이와 같은 정책을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납득했었죠?

③ <그림>에 의하면 자본 마모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저축량과 감가상각량이 일치하는 자본량은 작아진다.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감가상각량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정태상태 자본량은 감소하네.
해설	자본 마모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감가상각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림>의 '감가상각량'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량'과 '저축량'이 더 낮은 수준의 '자본량'에서 만나게 됩니다. 즉, '정태상태 자본량'이 작아지는 것이죠?

	'감가상각률'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림>을 통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네요.
--	--

- ④ <그림>에 의하면 저축률의 상승은 투자량과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는 자본량을 확대시킨다.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저축률이 많아지면 정태상태 자본량도 많아지네.
해설	이번엔 '저축률'의 상승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그림>의 '저축률' 그래프가 생산량 그래프에 더 가까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투자량'(=저축률)과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는 지점의 자본량이 더 많아지네요. 이번에도 그래프의 변화를 바탕으로 '정태상태 자본량'의 변화를 추론할 것을 요구한 선지였어요.

- ⑤ 황금을 자본량에 보유하고 있는 경제의 생산량은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변동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5문단 8번 문장, 6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황금을 자본량은 정태상태 자본량이지.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대로, '황금을 자본량'은 '정태상태 자본량'의 일종입니다. '정태상태 자본량'에 도달하면 외생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 그대로 그 자본량을 유지합니다. 자본량이 유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산량과 소비량 등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결국 '황금을 자본량'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묻는 선지였습니다.

18. [A]를 바탕으로 <보기>의 X국 경제 정책을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현재 X국에서는 투자량과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며, 자본량이 황금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주목한 정부는 황금률 자본량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단, 다른 조건의 변동은 없다.)

- X국의 상황부터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일단 '정태상태 자본량'을 충족한 상황인데, 자본량이 '황금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해요. 자본량을 오히려 줄여야 소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를 위해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해요. 이는 6문단에서 제시한 사례와 반대되는 상황이지요? 먼저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X국에서는 국민의 '저축률'을 낮추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그래야 소비가 늘어나니까요. 그렇게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저축이 줄었으니까요. 이렇게 투자가 줄면 그에 맞춰 자본량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본량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줄고, 이에 장기적으로는 소비량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겠죠. 다만 자본량이 줄어 '황금률 자본량'에 가까워진 상황이기때, 정책 시행 전보다는 소비가 늘었을 것입니다. 결국 미래 세대의 효용은 커진 상황이네

요. 이렇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소비가 늘어나 효용도 커진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황금을 자본량'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곧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니까요.

- ① 정책 시행 이후 현재 세대 중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의 효용 수준은 높아진다.

명시적 근거	<보기>, 6문단 1번 문장, 6문단 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소비가 늘면 효용도 늘지.
해설	<보기>의 상황은 6문단과 달리 현재 세대의 효용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이 지문에서 '효용 수준=소비 수준'이었는데,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소비 수준은 모두 증가하니까요. 이에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 가리지 않고 효용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 ② 정책 시행 이후 새로운 정태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소비는 점차 증가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6문단 2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증가하다가 줄어들지.
해설	우리가 미리 생각한 것처럼, 정책 시행 직후에는 소비가 크게 늘었다가 결국 자본량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황금을 자본량'에 가까운 새로운 '정태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정책 시행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의 소비량이겠지만, 어쨌든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 ③ 미래 세대의 효용 수준은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보다 높아진다.

명시적 근거	<보기>, 6문단 1번 문장, 6문단 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어쨌든 소비 수준은 높아지니까 맞지.
해설	현재 세대의 청년층·고령층, 나아가 미래 세대까지 모두 효용이 높아진다고 정리했습니다. 모두의 소비 수준이 높아지니까요!

- ④ 감가상각률은 정책 시행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렴한다.
⑤ 자본량은 정책 시행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렴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3번 문장, 6문단 2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본량 자체가 낮아지니까 감가상각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지.
해설	저축률이 하락하면서 저축률이 감소하고, 이에 자본량이 감소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본량과 감가상각률의 곱으로 구하는 감가상각률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보기>를 정리하면서 미리 생각했던 내용과 맞닿아 있으니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네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④ 사례-원리 연결 : 모든 사례는 어떠한 추상적인 원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을 연결지으며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⑤ 선지에서 묻는 것 : 모든 선지 판단의 시작은 '묻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특히 특정 개념에 대해 묻는 경우에는 그 개념의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다소 복잡해보이는 수식과 그림이 나오고, 순간적인 집중력을 잃으면 헛갈릴 수밖에 없는 관계를 가진 개념들이 등장하는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초반에 나오는 개념들의 정의를 잘 정리하고, 이를 끌고 오며 재진술을 인식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덧붙여 당연한 말로 납득하는 과정을 요구한, 전형적인 지문이기도 했어요. 특히 이런 사회 제재의 지문들은 최대한 납득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쉽지 않지만, 이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들은 충분히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복습해봅시다.

6주차 <법 제재의 지문 읽기>

2015LEET [30~32] 사회(법)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

1문단

①경업(競業)금지약정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과 경쟁 관계에 있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약정을 말한다. ②그 전형적인 예는 근로관계에서의 경업금지약정이다. ③근로자가 퇴사 후 사용자와 경쟁관계인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①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화제 제시

'경업금지약정'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이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과 '경쟁' 관계에 있는 영업을 '금지'하는 '약정'이에요.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화제와 직결되는 개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②~③ #사례-원리 연결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했는지, 예를 들어 주고 있습니다. 근로관계에서의 경업금지약정인데, 근로자가 퇴사 후 사용자와 경쟁관계인 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체를 설립, 운영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퇴사한 뒤 바로 경쟁업체의 일원이 되어 버리면 기존 회사에게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늘 강조하지만, 사회 지문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정보들의 나열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이라이트 문장

①경업(競業)금지약정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과 경쟁 관계에 있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약정을 말한다.

첫 문단의 첫 문장에서 정의되는 개념은 당연하게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화제와 직결되는 핵심 개념이니, 그 정의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2문단

①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문제였다. ②산업화 초기에는 봉건적인 경쟁제한을 철폐하고 영업의 자유 등 근대적인 경제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경업금지약정을 일반적으로 무효로 보았다. ③그러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영업비밀과 같은 기업의 지식 재산 보호, 연구개발 촉진, 공정한 경쟁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하였다. ④예를 들어 영업양도나 가맹계약(franchise)에서 경업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⑤영업의 가치를 이전하는 거래인 영업양도에서 양도인의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계약의 목적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당사자가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아도 경업금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⑥그리고 가맹계약에서도 권역별로 한 가맹점만 영업하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⑦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브랜드간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이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화제의 흐름

구체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로 만들어주면서, 혹시 이것이 진짜 화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주셔야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대해 어떤 논란이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②~③ #정의 제시 #재진술 #비교/대조

먼저 '산업화 초기'입니다. 이때는 근대적인 경제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경업금지약정'을 일반적으로 무효로 보았다고 해요. 산업화가 된 초기이니, 당연히 경제의 자유를 보장하며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했다는 식으로 납득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기업의 지식 재산 보호, 연구개발 촉진, 공정한 경쟁 등을 달성하기 위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그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이겠죠? 경쟁 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해야 지식 재산도 보호가 될 것이고, 경쟁 업체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연구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비로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납득하면서 읽어주셔야 해요.

④~⑤ #사례-원리 연결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예외 제시

자세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영업양도'와 '가맹계약'의 상황에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해요. 먼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영업'의 가치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을 허용하게 되면, 양도인은 영업을 양도해놓고 다시 그와 유사한 영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는 애초에 '영업양도'라는 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기에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아도 양도인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고 해요. 충분히 납득해주면서, '약정'이 없어도 '경업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원칙(이것이 왜 원칙인지는 법 제재의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다면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에 어긋나는 '예외'임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예외'는 법 지문의 핵심 포인트이니까요.

⑥~⑦ #사례-원리 연결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이번엔 '가맹계약'입니다. 역시 단어의 의미 그대로 '가맹'점 영업에 대한 '계약'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도 권역별로 한 가맹점만 영업하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요. 한 권역에 해당 브랜드만 여러 지점이 들어와 버리면, 브랜드 내의 경쟁만 있을 뿐 브랜드간의 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맹계약'에서 '경업금지약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①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문제였다.

지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결국 어떤 지문이란 '화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게 핵심이에요. 강력한 화제의 후보로 생각하며 글을 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3문단

①근로관계에 있어서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었다. ②기업이 투자를 통해 확보한 영업비밀의 보호 등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사 후 일정 기간 영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③그러나 근로관계에서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을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④나아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식의 생산과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과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⑤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업금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 경업금지의 기간과 범위 등도 필요한 한도 내에 있어야 유효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①~② #카테고리 나누기 #화제의 흐름

이번엔 '근로관계에서의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문단과는 다른 카테고리로 나눠주셔야겠죠? 2문단에서는 '영업양도'와 '가맹계약의 사례를 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사실 '근로관계에서의 경업금지약정'은 1문단에서부터 이야기한 내용임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지문은 '근로관계에서의 경업금지약정'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설명하는 것이네요. 기업이 투자를 통해 확보한 영업비밀의 보호 등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1문단의 내용을 납득하며 이미 생각했던 부분이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③~④ #비교/대조 #재진술

반대되는 입장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에서의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어찌 되었든 근로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근로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니까요. 나아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인재들을 많이 데리고 가는 신생 기업이 새롭게 경쟁에 뛰어 들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또,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제한해야 오히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식의 생산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산업 발전과 소비자 이익에도 기여할 것이구요.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재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엄청난 혁신에 기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납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⑥ #카테고리 나누기

이러한 '근로관계에서의 경업금지약정'의 찬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또 한편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조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로 인식하고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겠죠? 지금까지는 경업금지의 합리적인 이유, 이를테면 영업비밀의 보호 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경업금지의 기간과 범위' 등도 필요한 한도 내에 있어야 유효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죠. 경업금지약정을 하더라도, 그 기간을 100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설정하거나 범위를 '관련된 모든 산업'처럼 넓게 지정하면 경업금지의 합리적인 이유만으로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역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죠? 늘 강조하지만, 법 지문 독해의 핵심은 '최대한 상식적인 내용으로 납득하기'입니다. 법 지문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의 향연이예요.

하이라이트 문장

⑤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업금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 경업금지의 기간과 범위 등도 필요한 한도 내에 있어야 유효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다른 문장들은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문장은 '새로운 카테고리'라는 인식과 '납득하기'라는 태도를 모두 이용해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이라이트로 뽑아봤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읽으면 계속 정보가 쌓이는 느낌만 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4문단

①우리나라의 판례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자유경쟁을 한쪽에, 영업비밀 등 정당한 기업이익을 다른 한쪽에 놓고 양자를 저울질하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②구체적으로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할 때 보통 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보상조치의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①~②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우리나라의 판례도 앞에서 이야기한 찬반양론을 저울질하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및 지역·대상 직종(범위)'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해요.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경업 제한의 기간 및 지역·대상 직종'이라는 말에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해요. 바로 앞에서 읽었던 내용의 재진술이니까요.

나머지 내용들도 모두 당연히 납득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높을수록 원소속 기업과 관련된 정보가 많을 것이기에 경업을 금지하는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인 만큼 적절한 보상을 해야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퇴직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때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나라는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5문단

①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경업금지약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그 약정이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②이와 관련해서는 두 견해가 있다. ③첫 번째 견해는 경업금지의 문제에서는 직업의 자유 등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의 재산권이 충돌하는데, 이 두 권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가 제공 같은 보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④이 견해는 대가가 경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띠고 간주하여, 대가는 쌍무관계를 인정하는 정도의 균형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이번에도 새로운 카테고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시된 여러 가지 조건들 중, '근로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해요. 이처럼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정확하게 생각한 상태로 글을 읽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②~④ #주장 제시 #재진술

먼저 '첫 번째 견해'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의 재산권이라는 두 권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보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예요. 앞 문단을 읽으면서 납득했던 내용대로, 경업을 하지 않는

권리의 제한을 받는 대신 반대급부의 성격을 띠는 보상을 '쌍무관계를 인정하는 정도의 균형'을 고려하여 지급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①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경업금지약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그 약정이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새로운 카테고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단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읽어주셔야 해요.

6문단

①반면에 두 번째 견해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간과 장소가 비합리적으로 과도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경업금지의 제한을 감수할 수도 있다고 본다. ②자신의 희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는 근로자 자신의 결정에 맡겨져 있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균형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③그러면서도 이 견해는 당사자 간의 교섭력 차이나 기타 자기 결정 능력의 제약이라는 요건도 함께 고려해야 비로소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④곧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교섭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기 결정이 실제로는 진정 원했던 바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퇴직 이후에 효력이 발생할 경업금지약정에 관하여 계약 당시에는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①~② #비교/대조 #주장 제시 #재진술

이번엔 '두 번째 견해'입니다. 이는 '보상'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견해예요. 물론 기간과 장소, 즉 '범위'가 비합리적으로 과도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경업금지의 제한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자신의 희생(=근로권 제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는 근로자 자신의 결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하더라도, 근로자 자신이 만족을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이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라는 상황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경업금지약정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균형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만족스러운 내용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요.

③~④ #주장 제시 #재진술

그렇다고 이 견해가 무작정 기업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교섭력 차이, 이를테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어 더 낮은 교섭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로자는 실제로 진정 원했던 바가 아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 자기 결정 능력의 제약, 즉 퇴직 이후에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의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다면, 근로자의 보상이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생각 심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견해'가 '첫 번째 견해'와 달리 '보상이 필요 없어!'라고만 말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의 교섭력 차이, 자기 결정 능력의 제약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나아가 기간과 장소가 비합리적으로 과도하지 않다면 보상이 부족하거나 없어도 괜찮다는 게 '두 번째 견해'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첫 번째 견해'와 다르니까 '보상이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주장을 체크할 때는 아주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이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반면에 두 번째 견해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간과 장소가 비합리적으로 과도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경업금지의 제한을 감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첫 번째 견해'와 비교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문이 어려워질수록 이런 디테일한 차이가 문제 풀이의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예요.

30. 밑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②

- ①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명시적 근거	4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및 범위 등 여러 가지 계약의 내용을 따져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였죠?

- ② 경업을 합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간의 경업금지약정이 있어야 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영업양도는 예외였!
해설	기본적으로는 계약당사자 간의 경업금지약정이 있어야 경업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영업양도'의 상황이라는 예외가 있었죠? 이때는 애초에 양도인의 경업을 허용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에 반할 수 있기에 약정이 없어도 경업금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지문을 읽으면서부터 '예외'로 인식하면서 확실하게 체크하셨어야 해요. 법 지문은 결국 예외가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가볍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오늘날 경업금지약정은 지식 재산의 창출을 촉진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역시 납득했던 내용이죠? 경업금지약정 때문에 첨단기술 분야의 지식 생산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 등의 사례를 생각하며 납득했었습니다.

④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4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맞지.
해설	'기업의 정당한 이익 보호'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긍정하는 핵심 논거였죠? 역시 당연히 지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⑤ 산업화 초기에는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함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시적 근거	2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초기에는 그랬지.
해설	역시 미리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산업화 초기에는 경제적 자유 확립을 위해 경업금지약정을 일반적으로 무효로 보았으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했다고 했죠?

31. ㉠을 수행할 때,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나라의 판례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자유경쟁을 한쪽에, 영업비밀 등 정당한 기업이익을 다른 한쪽에 놓고 ㉠양자를 저울질하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 발문이 독특합니다. 정확하게 묻는 것을 체크해야 해요. ㉠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를 묻고 있어요. 즉,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것이네요. 상식적으로 납득했던 찬반양론의 주장을 바탕으로 답을 찾아봅시다.

㉠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퇴직 경위가 구린데 이 정도면 무효로 봐야지.

해설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근로자는 굳이 이직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퇴직하게 된 것인데, 이런 이에게까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볍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을 것입니다.
----	--

- ② 경업금지의 기간이 경쟁 회사의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짧게 설정된 경우
- ③ 근로자가 업무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회사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경우
- ④ 새로 취업한 경쟁 회사에서 근로자가 수행하게 된 업무가 퇴직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의 업무와 상당히 유사한 경우
- ⑤ 해당 분야에서 별다른 실적이 없던 경쟁 회사가 퇴직 근로자의 전직을 계기로 그 근로자가 근무했던 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적 성과를 단기간에 이룬 경우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부 경업을 허용하면 회사가 너무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네.
해설	경쟁 회사의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 지나기 전에 경업금지 제한이 풀린다거나,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투입했다거나, 거의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하게 된다거나, 퇴직 근로자의 전직을 계기로 경쟁 회사의 수준이 갑자기 올라버린다거나 하면 기존의 회사에게 지나치게 큰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핵심 포인트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고, 2번~5번 선지는 모두 이를 침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32. ㉠과 ㉡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첫 번째 견해 / ㉡두 번째 견해

- 역시 확실하게 납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 보상이 쌍무관계를 인정하는 정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경업금지약정이 효력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은 기간과 장소가 비합리적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교섭력 차이 및 자기 결정 능력의 제약을 모두 고려한 약정이라면 보상의 유무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어요.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골라봅시다.

㉠ ㉠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명시적 근거	5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니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하더니까?

해설	㉠은 쌍무관계를 인정하는 정도의 균형을 고려한 보상이 있어야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근로자와 회사가 자유롭게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본 게 아니에요.
----	---

② ㉠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퇴사 후 근로자의 취업을 제한하려면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명시적 근거	5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의 핵심이네.
해설	미리 생각한 ㉠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는 선 지조? 가볍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은 경업금지약정 체결에서 근로자의 자기 결정 능력이 제한 되지 않으면 그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명시적 근거	6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은 근로자의 '자기 결정 능력의 제한'이라는 포인트를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네요.

④ ㉠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된 시점이 퇴직 시인지 아니면 입사 시나 재직 중인지에 따라 그 효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명시적 근거	6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체결 시점에 따라 교섭력에 차이가 생기지!
해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된 시점이 입사 시나 재직 중인 경우 퇴직 시의 경우보다 회사의 교섭력이 훨씬 강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교섭력 차이를 얼마나 고려했는지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이 약정의 체결 시점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선지에서 묻는 '체결 시점'을 지문 속 '교섭력'과 엮어서 이해할 것을 요구한 꽤 어려운 선지입니다. 왜 굳이 '체결 시점'을 물었는지, 이게 ㉠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분하게 생각했어야 해요.

⑤ ㉠에 따르면,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의 체결을 거부하였는데도 회사 측이 강하게 주장하여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6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교섭력 차이도 너무 컸고, 자기 결정 능력도 완전 무시당했네.

해설	이 선지의 상황은 근로자에 비해 회사의 교섭력이 너무나 컸고, 나아가 근로자는 자신이 진정 원했던 결과의 약정을 한 것도 아니어서 자기 결정 능력의 제약이라는 조건도 고려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은 이런 경우에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겠죠.
----	--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p>*핵심 point*</p> <p>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p> <p>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의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p> <p>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p> <p>④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p> <p>⑤ 비교/대조 : 비교되는 대상이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됩니다.</p> <p>⑥ 예외 인식 :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는 언제나 중요한 출제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확실하게 체크합니다.</p>
--

<p>*지문 내용 총정리*</p> <p>사례와 예외, 나아가 '납득'이라는 포인트를 바탕으로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전형적인 법 제재의 지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지문은 수능에서 만날 수 있는 수준의 법 지문보다도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려웠다면 다시 법 제재의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법 지문 독해의 포인트들을 연습해보도록 합시다.</p>
--

6주차 <과학 제재의 지문 읽기>

2012LEET [15~17] 과학 '지방의 저장과 분해 과정' ☆☆☆

1문단 (1)

①신체 내에 지방이 저장되는 과정과 분해되는 과정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명확히 알려져 있다. ②지방은 지방세포 속에 중성지방의 형태로 축적된다. ③이 과정을 살펴보면, 음식물 형태로 섭취된 지방은 소화 과정에서 효소들의 작용에 의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작은창자에서 흡수되고 혈액에 의해 운반된 후 지방 조직에 저장된다. ④이 과정에서 중성지방은 작은창자의 세포 내로 직접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췌장에서 분비된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아제에 의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어 흡수된다. ⑤이렇게 작은창자의 세포에 흡수된 지방산과 글리세롤은 에스테르화라는 화학 반응을 통해 다시 합쳐져서 중성지방이 된다.

① #화제 제시

시원하게 화제를 제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은 '지방이 저장되는 과정'과 '분해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두 가지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②~③ #정의 제시 #과정 제시 #재진술

먼저 지방의 '축적'입니다. 지방은 '지방세포' 속에 '중성지방'의 형태로 축적된다고 해요. 과학 지문의 초반부이니, 단어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지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읽어야 해요.

3번 문장에서는 자세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형태로 지방이 섭취되면, 소화 과정에서 효소들의 작용에 의해 '중성지방'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앞에서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작은창자'에서 흡수되었다가, 혈액에 의해 운반된 후 '지방세포'가 있는 '지방 조직'에 저장되는 것이네요. 앞에서 이미 체크한 내용에 살을 붙이는 형태로 천천히 정리해나가야 합니다.

④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그런데, '중성지방'은 작은창자의 세포 내로 직접 흡수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파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어 흡수된다고 해요. 이때 '리파아제'는 췌장에서 분비된 '지방 분해 효소'인데, 단어의 의미 그대로 중성'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는 '효소'인 것이네요.

⑤ #정의 제시 #재진술

이렇게 작은창자의 세포에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흡수되면, '에스테르화'라는 과정을 거쳐 다시 합쳐진다고 합니다. '중성지방=지방산+글리세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중성지방이 그 자체로는 작은창자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일단 분해되었다가 작은창자에 들어온 이후 다시 합쳐진다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이 과정을 살펴보면, 음식물 형태로 섭취된 지방은 소화 과정에서 효소들의 작용에 의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작은창자에서 흡수되고 혈액에 의해 운반된 후 지방 조직에 저장된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나온 정보들이 반복되며 살이 붙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문장은 조금이라도 유기성을 가지고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1문단 (2)

⑥이 중성지방은 작은창자의 세포 내에서 혈관으로 방출되어 신체의 여러 부위로 이동한다. ⑦중성지방이 지방세포 근처의 모세혈관에 도달하였을 때, 모세혈관 세포의 세포막에 붙어 있는 리파아제에 의해 다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 후 지방세포 내로 흡수된다. ⑧이때의 리파아제는 지방 흡수를 위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옮겨진 것이다. ⑨지방세포는 흡수된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다시 에스테르화하여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한다. ⑩만약 혈액 내에 중성지방의 양이 너무 많아서 기존의 지방세포가 커지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을 경우,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초과된 양을 저장한다.

⑥ #재진술

이렇게 '에스테르화'되어 만들어진 중성지방은 '혈관'으로 방출되어 신체의 여러 부위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중성지방은 혈액에 의해 운반되어 '지방 조직', 즉 지방세포로 이동한다는 것을 체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체의 여러 부위' 중 가장 중요한 부위는 바로 '지방세포'겠죠? 이렇게 연결지으면서 읽어야 해요.

⑦~⑧ #재진술 #정의 제시 #비교/대조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지방세포' 근처의 모세혈관에 도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 다시 '리파아제'가 작용하여 중성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한다고 해요. '리파아제'라는 '진짜로' 같은 말이 반복되었으니 앞으로 가서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는 원래 '췌장'에서 분비된 것으로, 작은창자에 직접 흡수되지 못하는 중성지방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지방세포'로 중성지방을 흡수시키기 위해 '지방세포'에서 직접 분비하여 옮겨진 것이네요.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목적, 만들어진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며 두 가지 '리파아제'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⑨ #재진술

이렇게 '리파아제'의 도움으로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흡수한 지방세포는 이를 다시 '에스테르화'하여 다시 중성지방으로 합치고, 이를 저장합니다. 역시 '에스테르화'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에스테르화=지방산과 글리세롤의 결합'임을 확실하게 인식해야겠죠?

⑩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런 과정을 거쳐 지방을 '축적'하는데, 혈액 내에 중성지방의 양이 너무 많아서 기존의 지방세포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경우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요. 이것이 살이 찌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⑨지방세포는 흡수된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다시 에스테르화하여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한다.

'에스테르화'라는 '진짜로' 같은 말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금까지 '지방의 축적'이라는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뒤에서는 '지방의 분해'에 대해 다룰 것

임을 예상할 수 있다면 더욱 훌륭할 것이구요.

2문단

①지방세포에 저장된 중성지방은 다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 후 혈액으로 분비되어 신체 기관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②이러한 중성지방의 분해는 카테콜아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지방세포 내 호르몬-민감 리파아제의 활성화를 통해 일어나는 카테콜아민-자극 지방 분해와 카테콜아민의 작용 없이 일어나는 기초 지방 분해로 나뉜다. ③이 가운데 기초 지방 분해는 특별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는 평상시에 일어나며, 카테콜아민-자극 지방 분해는 격한 운동을 할 때와 같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 일어난다. <④일반적으로 기초 지방 분해 과정에 의한 중성지방의 분해 속도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빨라진다.>

① #재진술 #카테고리 나누기

리파아제에 의한 두 번의 분해와 에스테르화를 거쳐 지방세포에 저장된 '중성지방'은 또 다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 기관의 에너지원이 된다고 해요. 지방이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나아가 이제부터는 '지방의 분해'라는 카테고리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읽어야 합니다.

②~③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비교/대조

이러한 중성지방의 분해는 '카테콜아민-자극 지방 분해'와 '기초 지방 분해'로 나뉜다고 합니다. 전자의 경우, 단어의 의미 그대로 '카테콜아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지방세포 내 호르몬-민감 '리파아제'를 '자극'시켜 일어나는 '지방 분해'예요. 다른 단어는 몰라도, '리파아제'라는 말이 반가워하겠죠? 1문단에서부터 '리파아제'는 중성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3번 문장에 의하면, '카테콜아민-자극 지방 분해'는 격한 운동을 할 때처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 일어난다고 하네요.

다음은 '기초 지방 분해'입니다. 이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카테콜아민의 작용 없이 '기초'적으로 일어나는 '지방 분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기초'적인 지방 분해이기에, 특별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없는 평상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④ #비례/증감 관계

이때, '기초 지방 분배' 과정에 의한 중성지방의 분해 속도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를 일종의 비례/증감 관계로 보고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확실하게 납득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지방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당연히 거기서 일어나는 지방 분해도 훨씬 파워풀하게 일어난다는 식으로 납득할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①지방세포에 저장된 중성지방은 다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 후 혈액으로 분비되어 신체 기관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중성지방의 '분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사실 앞에서 이미 생각했던 내용이어야 해요. 화제의 흐름이 확실하게 잡

히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3문단

①따라서 지방세포 내로 중성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조절하거나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의 분해를 조절하는 것이 체내 지방의 축적을 조절하는 방법이 된다. ②이러한 지방 축적의 조절에는 성장 호르몬이나 성 호르몬 같은 내분비 물질이 관여한다. ③이 가운데 성장 호르몬은 카테콜아민-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켜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방세포가 분비한 리파아제의 활성을 감소시켜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의 저장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④이러한 이유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많은 사춘기보다 분비량이 줄어드는 성인기에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의 축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① #재진술 #카테고리 나누기

이와 같은 중성지방의 '축적'과 '분해'를 조절하는 것이 체내 지방의 축적을 조절하는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납득해주시면 되겠죠? 나아가 '체내 지방의 축적 조절 방법'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열심히 정리한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할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②~③ #정의 제시 #재진술

여기에는 '성장 호르몬'이나 '성 호르몬' 같은 내분비 물질이 관여한다고 합니다. 먼저 '성장 호르몬'은 '카테콜아민-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지문 속에서도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지방 분해 촉진'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테콜아민-자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납득할 수 있겠죠.

또한 지방세포가 분비한 '리파아제'의 활성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리파아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세포가 분비한' 리파아제는 지방세포 내로 중성지방을 흡수하기 위해 중성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는 것이었죠? '성장 호르몬'은 이러한 리파아제의 활성도 감소시킵니다. 즉, 중성지방이 지방세포에 쌓이는 걸 막아주는 것이죠.

④ #재진술

결국, 이 지문에서 '성장 호르몬'은 곧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춘기보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드는 성인기가 되면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의 축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요. 많이 먹어도 다 키로 간다고 하는 사춘기의 비밀은 여기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③이 가운데 성장 호르몬은 카테콜아민-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켜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방세포가 분비한 리파아제의 활성을 감소시켜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의 저장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장이 너무 친절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방 분해를 촉진', '중성지방의 저장을 줄이는 것'과 같은 말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앞의 내용과 엮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4문단

①한편 성 호르몬의 혈중 농도는 사춘기에 증가하며 성인기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다가 노년기에 이르러 감소한다.
②성 호르몬이 지방의 축적과 분해에 관여하는 기전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근 연구들은 여성의 경우 둔부와 대퇴부의 피부 조직 아래의 피하 지방세포에 지방이 더 많이 축적되는 데 비해 남성의 경우 복부 창자의 내장 지방세포에 더 많이 축적된다는 사실로부터 지방 축적에 대한 성 호르몬의 기능을 설명하려고 한다.

①~② #카테고리 나누기

이번엔 ‘성 호르몬’입니다. 이 역시 ‘성장 호르몬’처럼 사춘기에 증가다가 성인기에 감소하고, 노년기에 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성 호르몬’이 지방의 축적과 분해에 어떻게 관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지방이 여성의 경우 둔부와 대퇴부의 피부 조직 아래의 피하 지방세포에, 남성의 경우 복부 창자의 내장 지방세포에 더 많이 축적된다는 사실로부터 지방 축적에 대한 ‘성 호르몬’의 기능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여성은 보통 하체에, 남성은 보통 상체에 살이 쉽게 찰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성 호르몬’의 역할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뒤에서 제시되겠죠?

5문단

①성별 지방 축적의 차이를 밝히려는 이러한 시도들은 두 가지 부면으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다. ②먼저 성별에 따른 지방의 축적 및 분해 양상의 차이이다. ③성인의 내장 지방세포의 경우, 카테콜아민-자극 지방 분해 속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빠르며,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리파아제의 활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 ④반면에 성인의 둔부와 대퇴부의 피하 지방세포의 경우, 카테콜아민-자극 지방 분해 속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빠르며, 에스테르화되는 중성지방의 양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다. ⑤다음은 신체 부위에 따른 지방 분해 양상의 차이이다. ⑥여성의 경우는 카테콜아민-자극 지방 분해가 둔부와 대퇴부 피하 지방세포보다 내장 지방세포에서 더 빠르게 일어나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그 속도가 비슷하다.

①~③ #카테고리 나누기 #정의 제시 #재진술

성별 지방 축적의 차이를 밝히려는 시도를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성별에 따른 지방 축적 및 분해 양상의 차이’입니다. ‘내장 지방세포의 경우, 카테콜아민-자극 지방 분해’ 속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카테콜아민-자극 지방 분해’는 말 그대로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반대로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리파아제’, 즉 지방의 축적을 유도하는 효소의 활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고 해요. 계속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내장 지방이 더 많이 쌓인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죠?

④ #재진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둔부와 대퇴부, 즉 여성에게 더 많은 지방이 쌓이는 부분에서의 ‘카테콜아민-자극 지방 분해 속도’는 당연히 남성이 더 빠를 것입니다. 나아가 ‘에스테르화’, 즉 지방세포가 중성지방을 저장하는 과정에서의 결과물의 양은 당연히 여성이 더 많을 것이구요. 이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와 같이 앞에서 열심히 체크했던 내용들을 끌고 오며 가볍게 납득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⑤~⑥ #카테고리 나누기 #재진술

‘신체 부위에 따른 지방 분해 양상의 차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성은 ‘카테콜아민-자극 지방 분해’가 둔부와 대퇴부보다 내장 지방세포에서 더 빠르게 일어난다고 해요. 이렇게 내장 지방을 더 빠르게 분해할 수 있으니 남성에 비해 내장 지방이 더 적은 것이죠.

한편, 남성은 그 속도가 부위에 상관없이 비슷하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둔부 및 대퇴부에서의 지방 축적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간단하게 납득해주시면 되겠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성인의 내장 지방세포의 경우, 카테콜아민-자극 지방 분해 속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빠르며,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리파아제의 활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

이 문장을 가볍게 납득하면서, 결국 뒤에 나올 내용도 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열심히 정리한 초반부 정보들을 끌고 오면서 끄덕이기만 하면 되는 문단인 거예요.

6문단

①이처럼 성별 및 부위별 지방세포에 따라 중성지방의 저장과 분해 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성 호르몬이 지방세포에서 일어나는 중성지방의 저장과 분해 과정의 조절에 매우 복잡한 방법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① #화제의 흐름

결국 ‘성 호르몬’ 역시 중성지방의 저장과 분해라는 이 지문의 화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가볍게 끄덕이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1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 ① 카테콜아민은 지방세포 내에서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에스테르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명시적 근거	1문단 5번 문장, 2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카테콜아민은 지방 분해하는 거고 에스테르화는 축적하는 건데?
해설	결국 이 지문의 핵심은 ‘지방 축적’에 관여하는 것과 ‘지방 분해’에 관여하는 것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카테콜아민’은 ‘호르몬-민감 리파아제’를 활성화시켜 지방을 분해하는 것이고,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에스테르화’ 반응은 둘이 합쳐져 중성지방으로 축적되는 과정입니다. 아예 다른 카테고리를 섞어 두고 있으니, 가볍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겠죠?

② 중성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어야 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지방세포에 저장된 중성지방이 다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고 나면 신체 기관의 에너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분해'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화제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③ 신체 내에 지방세포가 다른 부위보다 더 잘 축적되는 부위는 성별에 따라 다르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남자는 상체, 여자는 하체!
해설	여성의 경우 둔부와 대퇴부의 피부 조직 아래의 피하 지방세포에 지방이 더 많이 축적되는 데 비해 남성의 경우 복부 창자의 내장 지방세포에 더 많이 축적된다고 했습니다. 이로부터 '성 호르몬'이 지방의 축적과 분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했죠?

④ 음식물 형태의 지방은 작은창자에서 흡수되기 위해 효소의 작용이 필요하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리파아제!
해설	음식물 형태로 섭취된 지방은 일단 소화 과정에서 '효소'들의 작용에 의해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중성지방이 작은창자에 흡수되기 위해, '췌장에서 분비된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이를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했었죠?

⑤ 지방세포의 크기와 지방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초 지방 분해 속도는 비례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당연하게 납득했던 내용이네.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에서 말하듯이, 지문을 읽으며 당연하게 납득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선지를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16. '리파아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 '췌장'과 '지방세포'에서 분비되거나, '카테콜아민'에 의해 활성화되어 중성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는 '리파아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납득하고 있으니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성장 호르몬은 호르몬-민감 리파아제의 활성을 증가시킨다.

명시적 근거	2문단 2번 문장,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성장 호르몬은 카테콜아민-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키지.
해설	'성장 호르몬'은 '카테콜아민-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켜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카테콜아민'이 자극되면 지방세포 내 '호르몬-민감 리파아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이 분해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성장 호르몬'이 '호르몬-민감 리파아제'의 활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가볍게 맞는 말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②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리파아제는 지방세포에서 지방산 분비를 감소시킨다.

명시적 근거	1문단 7번~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건 중성지방을 지방산이랑 글리세롤로 분해하는 거잖아.
해설	이 지문에서는 크게 세 종류의 '리파아제'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리파아제'는 지방세포 근처의 모세혈관에 도달한 중성지방을 지방세포가 받아들이기 위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는 역할을 했어요. 즉, 이 리파아제는 지방세포에 지방산이 쌓이게 하는 역할을 하지, 지방산 분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참고로, 선지에서 묻는 '지방산 분비'는 '카테콜아민'의 영향으로 활성화되는 '호르몬-민감 리파아제'의 역할입니다. 이를 정확히 구분하면서 글을 읽었는지 꼭 점검해보도록 하세요.

③ 췌장에서 분비된 리파아제의 활성이 억제되면, 체내에 지방 축적이 감소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췌장에서 분비된 리파아제는 지방 축적에 도움을 주는 거지.
해설	이번엔 '췌장에서 분비된 리파아제'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 형태의 지방이 중성지방으로 전환된 후 작은창자에서 흡수될 때 이를 돕기 위해 중성지방을 지방산 글리세롤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지방을 '축적'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하게도 이 리파아제의 활성이 억제되면 체내 지방 '축적'이 감소될 것입니다.

④ 신체에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면, 지방세포 내 호르몬-민감 리파아제의 활성이 증가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면 카테콜아민-자극 지방 분해가 일어나지.
해설	신체에서 많은 에너지가 요구될 때는 '기초 지방 분해'보다는 '카테콜아민-자극 지방 분해'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며 둘의 차이점으로 확실하게 납득했던 내용이죠? 이는 곧 지방세포 내 '호르몬-민감 리파아제'의 활성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이니, 가볍게 맞는 말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⑤ 모세혈관 세포의 세포막에 붙어 있는 리파아제의 활성이 증가하면, 지방세포 내에서 에스테르화되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양은 증가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5번~9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축적이 많이 된다는 말이네.
해설	'모세혈관 세포의 세포막에 붙어 있는 리파아제'는 곧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옮겨진 리파아제'입니다. 이는 중성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하여 지방세포에 흡수되게끔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들이 '에스테르화'되어 다시 중성지방으로 '축적'된다고 했죠? 이 '리파아제'가 역할을 잘 할수록, 당연히게도 그 다음 단계인 '에스테르화'되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양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 선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지방 축적이 증가한다'는 말로 읽힌다면 아주 훌륭해요.

17. <보기>와 같은 실험을 수행한다고 할 때, 윗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지방량 증가가 예상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아래와 같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약물을 투여한 후, 투여 전후의 내장지방 또는 대퇴부 피하지방의 양을 비교하였다. (단, 약물 투여 전후의 기초 지방 분해량에는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고, 투여 약물이 지방 조직을 제외한 다른 조직에 작용하여 지방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 발문과 <보기>의 내용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약물을 투여한 후 '지방량 증가'가 예상되는 것만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잊지 않은 채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피험자	투여 약물	측정 부위
㉠	정상 체중의 32세 남성	여성 성 호르몬	대퇴부 피하

명시적 근거	<보기>, 5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여성 호르몬을 넣었으면 둔부와 대퇴부에 살이 찌겠지.

해설	정상 체중의 평범한 남성에게 '여성 성 호르몬'을 주입한 상황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둔부와 대퇴부 피하의 지방이 많다고 했으니, 지방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	--

	피험자	투여 약물	측정 부위
㉡	혈중 여성 성 호르몬 농도가 매우 낮은 70세 여성	남성 성 호르몬	내장

명시적 근거	<보기>, 5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여성 호르몬도 적는데 남성 호르몬이 들어갔으면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겠다.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대로입니다. 이미 여성 성 호르몬 농도가 낮아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기 시작했을 텐데, 여기에 '남성 성 호르몬'까지 주입했으니 '내장'의 지방량 증가는 뻔한 결과죠?

	피험자	투여 약물	측정 부위
㉢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 35세 남성	성장 호르몬	내장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성장 호르몬 들어가면 지방이 분해되지.
해설	이번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남성에게 '성장 호르몬'을 주입한 상황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를 촉진하여 중성지방의 저장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럼 지방량이 오히려 감소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겠네요.

	피험자	투여 약물	측정 부위
㉣	혈중 여성 성 호르몬 농도가 매우 낮은 35세 여성	여성 성 호르몬	내장

명시적 근거	<보기>, 5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여성 호르몬 들어갔으면 내장 쪽은 늘기 힘들지.
해설	이번엔 '여성 성 호르몬'을 주입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내장에서 '카테콜아민-자극 지방 분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럼 내장 쪽에 지방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④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 ⑤ 초반 정보 견디기 :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초반부에 정보를 잔뜩 던지고, 후반부에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논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초반부의 정보만 잘 견디면 뒤에서 편해집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초반부에 조금 버거워 보이는 정보를 최선을 다해 정리하고, 뒷부분을 읽으며 그 내용을 적용시키는 전형적인 과학 지문이 있습니다. 수능에 출제되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수준의 지문이니 확실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합시다.

6주차 <인문 제재의 지문 읽기>

2026LEET [13~15] 인문 '인식적 수의주의' ☆☆☆☆

1문단

①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믿고 싶다고 맘대로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②그렇게 상상하거나 또는 그렇게 믿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 ③하지만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참이라고 믿는 것인데, 원한다고 해서 “해는 서쪽에서 뜬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실제로 믿을 수 있을까? ④최소한 어떤 믿음은 인간이 수의적으로 즉, 자기 뜻대로 즉각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인식적 수의주의라 하고 그런 믿음은 없다는 입장을 인식적 불수의주의라 한다.

①~③ #사례-원리 연결 #화제 제시 #정의 제시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사례를 들며, 무언가를 믿고 싶다고 맘대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물어보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2번 문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거나 믿는 듯이 행동하는 것 자체는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참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상하거나 믿는 듯이 행동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을 구별하고 있네요.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말이 '참'이라는 것을 실제로 믿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믿는다는 것'의 정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④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비교/대조

이와 관련해서, '수의적'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뜻대로 즉각적으로 믿는다는 개념이네요. 앞에서 정의한 '믿는다는 것'의 정의를 끌고 오면, 자기 뜻대로 즉각적으로 참이라고 믿는다는 말이겠죠. 이러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인식적 수의주의'라고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인식적 불수의주의'라고 하네요. 단어의 의미를 살리고, '수의적'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글을 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각 입장은 저 한마디만 할 거예요!

하이라이트 문장

④최소한 어떤 믿음은 인간이 수의적으로 즉, 자기 뜻대로 즉각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인식적 수의주의라 하고 그런 믿음은 없다는 입장을 인식적 불수의주의라 한다.

'수의적'이라는 말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말의 정의와 연결지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문단부터 대놓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그 정의를 거의 외우다시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해요!

2문단

①수의주의가 옳으냐는 질문은 우리가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질문과 연관된다. ②사람들은 종종 판단이나 믿음을 평가하고 심지어 비난하기도 한다. ③“너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해.”, “그런 인종차별적 믿음은 버려야 해.” 등이 그 예이다. ④그런데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라는 칸트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할 능력을 지닌 경우에만 그 행위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있다. ⑤이 원칙을 믿음에 적용하면, 우리는 오직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자신의 믿음을 뜻대로 선택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믿음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있다. ⑥따라서 불수의주의가 옳다면 우리는 각자가 가진 믿음에 대해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없다.

① #재진술 #화제의 흐름

'수의주의'가 옳으냐는 질문으로 화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질문과 연관된다고 하네요. 자기 뜻대로 즉각적으로 그것이 참이라고 믿으려면, 그 믿음에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네요. 조금 더 읽어 봅시다.

②~③ #사례-원리 연결

우리는 종종 판단이나 믿음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3번 문장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이 말이 결국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1번 문장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이네요. 어떤 믿음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해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무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등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처럼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해 성급하게 '의무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이에 대해 제대로 책임질 수 없으면 함부로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이렇게 엮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④~⑥ #주장 제시 #재진술 #화제의 흐름

여기서 '칸트'의 원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행위 선택에 대한 '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만 '의무나 책임', 즉 '당위'를 내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곧 '믿음에 대해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있느냐'와 관련된다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믿음'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수의적'이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불수의주의'가 옳다면, 즉 인간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각자가 지는 '믿음에 대해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없어요. 2번 문장의 내용과 연결지으면, 이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평가한다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를 낳습니다.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없는데, 이에 대해 '평가'하는 건 말이 되질 않니까요. 결국 2문단은 '인식적 수의주의'를 옹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한마디'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⑥따라서 불수의주의가 옳다면 우리는 각자가 가진 믿음에 대해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없다.

앞에서 나온 '능력'이라는 말이 '수의적'이라는 말과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장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화제의 흐름 속으로 넣어 주면서 읽어나가는 태도가 필요해요.

3문단

①수의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논변이 있다. ②울스틴은 인간 심리에 근거해 수의주의에 반대한다. ③그는 “해는 서쪽에서 뜬다.”처럼 거짓임이 분명한 명제의 경우에는 누구도 수의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험적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④그리고 명제 p를 지지하는 증거와 반대하는 증거가 증거력이 비

수해서 참·거짓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올스턴은 p 를 수의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⑤그 상황에서 p 를 정말로 믿게 되었다면, 이는 그 순간 p 가 조금이나마 더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다. ⑥그렇지 않고 양쪽 증거력이 정확히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 한쪽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그 명제를 진정으로 믿게 된 것이라기보다 그저 그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행위의 근거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⑦우리가 장기적인 행위나 습관 형성을 통해 자신의 믿음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올스턴에 따르면 이는 수의적으로 믿음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화제의 흐름

2문단에서는 ‘인식적 수의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번엔 이에 반대하는 논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르를 확실하게 나눠 주면서 읽을 수 있어야겠죠? 2문단이 ‘인식적 수의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임을 생각했어야 여기서 비교/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②~③ #주장 제시 #사례-원리 연결

먼저 ‘올스턴’의 주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 심리’에 근거해 ‘수의주의’를 반대한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해는 서쪽에서 뜬다.”라는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임이 분명한 명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수의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올스턴’의 주장입니다. ‘인간 심리’와 연결지어 생각하면, 누가 봐도 거짓임이 분명한 명제의 경우에 그것을 ‘수의적’으로 믿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④~⑤ #주장 제시 #재진술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외에도, 명제 p 를 지지하는 증거와 반대하는 증거의 증거력이 비슷한 경우에 대해서도 ‘수의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올스턴’의 주장입니다. 그 상황에서 p 를 정말로 믿게 되었다는 말은 그저 그 순간 p 가 조금이나마 더 그럴듯해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즉, 정말로 ‘믿음’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데?’라는 생각을 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⑥ #주장 제시 #재진술

양쪽 증거력이 정확히 같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즉, 조금이나마 더 그럴듯해 보이는 쪽이 없는 경우 말이에요. 이때 어떤 사람이 한쪽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그저 그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하고 행위의 근거로 사용하기로 한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닌, 그저 ‘가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인간 심리’에 근거했다는 말과 연결지면, 진정으로 그 한쪽을 신뢰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심리’적으로 더 끌리는 쪽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심했을 뿐이라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⑦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렇게 자신의 ‘심리’에 따라 장기적인 행위나 습관을 형성하면, 이것이 자신의 믿음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의적’인 믿음의 변경은 아니에요. ‘수의적 믿음’은 ‘자기 뜻대로 즉각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형성된 믿음이기 때문에 ‘수의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올스턴’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의적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심리’에 따라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수의적’이지는 않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훌륭합니다.

생각 심화

‘올스턴’은 ‘거짓임이 분명한 명제’(3번 문장), ‘명제를 지지하는 증거와 반대하는 증거가 증거력이 비슷한 경우’(4번 문장), ‘양쪽 증거력이 정확히 같은 경우’(6번 문장)를 들면서 ‘수의주의’에 반대하는 논변을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참임이 분명한 명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올스턴’의 주장을 ‘참일 확률 0%’, ‘참일 확률 30%’, ‘참일 확률 50%’와 같이 정리한다면, ‘참일 확률 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요. 1문단에서 제시한 ‘인식적 수의주의’의 정의는 ‘최소한 어떤 믿음’은 수의적이라는 것인데, 최소한 ‘참임이 분명한 명제’에 대해서는 수의적 믿음이 가능하다면 ‘수의주의’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게 되고, 결국 ‘올스턴’의 주장 자체를 반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스턴’의 입장에선 이를 방어할 논리가 필요하겠죠?

“해는 동쪽에서 뜬다.”와 같이 참임이 분명한 명제를 떠올려 봅시다. 이에 대해 ‘올스턴’은 ‘인간 심리’에 근거해 ‘수의적 믿음’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수의적 믿음’의 핵심적인 정의 중 하나는 ‘자기 뜻대로’입니다. 그런데 “해는 동쪽에서 뜬다.”와 같은 명제는 너무나 강력한 증거력(‘매일 아침 확인해 보니 진짜로 동쪽에서 뜨더라’와 같은)에 의해 참임이 증명됩니다. 즉, 인간의 ‘심리’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명제에 대한 믿음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강력한 증거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에, ‘수의적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의적 믿음’은 불가능하니까요.

나아가,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올스턴’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심리는 증거에 종속되어 있을 뿐 의지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만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마음에 드는 증거를 택할 뿐, 우리의 직접적인 ‘의지’가 믿음을 형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이라이트 문장

②올스턴은 인간 심리에 근거해 수의주의에 반대한다.

‘올스턴’은 이 한마디만 할 것입니다. 최대한 ‘인간 심리’라는 포인트와 엮어서 주장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해요. 나아가 그 주장이 결국 ‘수의적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야겠죠?

4문단

①믿음의 개념 분석에 기반한 불수의주의도 있다. ②윌리엄스에 따르면, 명제 p 를 수의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p 가 참인지와 무관하게 p 를 믿을 능력을 필요로 한다. ③그리고 누가 이 능력을 사용했다면 그는 스스로가 이 능력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밖에 없다. ④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지닌 어떤 믿음에 대해서도 그것이 참·거짓 여부와 무관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⑤믿음의 개념상 p 를 믿는다는 것은 곧 p 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⑥따라서 우리 자신이 명제의 참·거짓 여부와 무관하게 명제를 믿을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결국 어떤 믿음을 수의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화제의 흐름

이번엔 '믿음의 개념 분석'에 기반해서 '수의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나눠 주시고, '믿음의 개념 분석'이라는 포인트를 통해 어떻게 '수의적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읽어봅시다.

②~③ #주장 제시 #재진술

이러한 주장을 펼친 이는 '윌리엄스'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명제 p를 '수의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p가 참인지와 무관하게 p를 믿을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p가 참이든 아니든 자기 뜻대로 즉각적으로 믿는 것을 '수의적'이라고 했으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2문단에서 '수의주의자'마저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능력'을 가졌다고 이야기했구요.

나아가, 누가 이 능력을 사용했다면 그는 스스로가 이 능력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믿음에 대한 '능력'이 있기에 믿음을 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④~⑤ #주장 제시 #재진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지닌 어떤 믿음에 대해서도 그것이 참·거짓 여부와 무관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해요. '윌리엄스'가 중요시하는 '믿음의 개념'을 분석해보면, p를 믿는다는 것은 곧 p가 참이라는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를 대입했을 때, p가 참인지와 무관하게 p를 믿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3번 문장에서 말한 것처럼 p를 믿는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p가 참임을 믿는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즉, 본인 스스로 p가 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에, p의 참·거짓과 무관하게 '믿음'이 형성되었다고 말하는 건 자기기만이 되는 것이죠.

⑦ #재진술

계속해서 같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명제의 참·거짓 여부와 무관하게 명제를 믿을 '능력'이 있다고 알게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 자체가 '참'이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기에, 애초에 '수의적 믿음'이라는 개념의 정의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윌리엄스'의 한마디를 확실하게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⑥따라서 우리 자신이 명제의 참·거짓 여부와 무관하게 명제를 믿을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결국 어떤 믿음을 수의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문장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고, 앞에서 했던 말의 요약이라고 느껴져야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은 한마디만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윌리엄스'의 한마디는 '수의적 문장의 정의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었어요.

5문단

①히로니미 역시 '수의성'과 '믿음'의 정의에 기반해 수의주의에 반대한다. ②그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수의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천적인 이유에 따라 즉각 행해질 수 있다는 것

상상력의 한계가 그사람의 한계가 된다.

이며, p라고 믿는다는 것은 "p가 참인가?"라는 의문을 해결함으로써 갖게 되는 태도라는 의미에서 참을 목표로 하는 태도이다. ③또한 그는 믿음을 지지할 수 있는 이유를 내용 관련 이유와 태도 관련 이유로 구별한다. ④전자는 믿음의 내용, 즉 "p가 참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이유이며, 이는 곧 믿음이 참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⑤반면, 후자는 "p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이유이고 내용의 참·거짓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외부적 이유이다. ⑥가령 내일 비가 온다는 믿음의 경우, 일기예보에서 그렇게 예측했다는 사실은 전자이지만, 비가 온다고 믿으면 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사실은 후자이다. ⑦그런데 명제 p를 수의적으로 믿을 능력은 외부적 이유에 따라 p가 참임을 믿을 능력을 필요로 하고 이것은 "p가 참인가?"라는 질문에, 그 질문과 무관한 이유에 따라 답할 능력을 요구한다. ⑧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없으므로 수의적 믿음은 불가능하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화제의 흐름

이번엔 '히로니미'입니다. 그 역시 '수의성'과 '믿음'의 정의에 기반해 '수의주의'에 반대하고 있어요. '윌리엄스'와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모습이지요? 카테고리를 나눠 놓은 채로 확실하게 이해할 준비를 해봅시다.

② #정의 제시 #주장 제시 #재진술

그는 어떤 행위가 '수의적'이라는 것을 '그것이 실천적인 이유에 따라 즉각 행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각 행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수의적'의 정의와 똑같은데, '실천적인 이유'라는 말이 덧붙었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되겠죠?

나아가, '히로니미'는 'p를 믿는다는 것'을 '참을 목표로 하는 태도'로 정의했어요. "p가 참인가?"라는 의문을 해결한 결과 가지게 되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이는 '참을 목표로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로 다음 문장들을 읽어주세요.

③~⑥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사례-원리 연결

여기에, '히로니미'는 믿음을 지지할 수 있는 이유를 '내용 관련 이유'와 '태도 관련 이유'로 구별합니다. 전자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믿음의 '내용'에 대답하는 이유로, 믿음이 참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요. 한편 후자는 역시 단어의 의미 그대로 "p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이유, 즉 믿음이라는 '태도'를 갖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유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예를 들어 주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는 것을 믿을 때, 일기예보에서 그렇게 예측했다는 사실은 전자입니다. 이는 "p가 참인가?"라는 믿음의 '내용'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이자, 믿음이 참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죠. 한편, 비가 온다고 믿으면 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사실은 후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면 비가 온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 '태도'가 됩니다. 나아가 '믿음' 그 자체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는 점에서 '외부적 이유'가 되는 것이죠.

⑦~⑧ #주장 제시 #재진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왜 수의주의에 반대하는데?'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명제 p를 '수의적'으로 믿을 능력은 '외부적 이유'에 따라 p가 참임을 믿을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외부적 이유'라는 '진짜로' 같은 말을 활용하면, 이것이 곧 '태

도 관련 이유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히로니마’가 최초로 정의한 ‘수의적’이라는 것은 ‘실천적인 이유에 따라 즉각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실천적인 이유’가 곧 ‘외부적 이유’, 즉 ‘태도 관련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히로니마’가 정의한 ‘믿음’은 “p가 참인가?”라는 물음, 즉 믿음의 ‘내용’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갖게 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내용 관련 이유’와 관련된 것이죠. 결국, 명제 p를 ‘수의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태도 관련 이유’를 바탕으로 ‘내용 관련 이유’를 찾아나서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은 있을 수 없어요. 앞에서 제시한 예시를 바탕으로 하면, 비가 온다는 것이 참이냐는 질문에 대해 비가 오면 기분이 좋다고 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수의적’이라는 행동의 실체이기 때문에, ‘수의적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 ‘히로니마’의 주장입니다.

‘히로니마’는 결국 ‘윌리엄스’와 똑같이 ‘수의적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주장을 하며 ‘수의주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양상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윌리엄스’는 자기 인식에 대한 모순을, ‘히로니마’는 이유와 대답 간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를 확실하게 납득한 채로 문제를 풀러 갈 수 있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⑦ 그런데 명제 p를 수의적으로 믿을 능력은 외부적 이유에 따라 p가 참임을 믿을 능력을 필요로 하고 이것은 “p가 참인가?”라는 질문에, 그 질문과 무관한 이유에 따라 답할 능력을 요구한다.

‘외부적 이유’, “p가 참인가?”라는 질문 등 앞에서 나왔던 말들이 반복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최대한 납득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궁금한 것은 ‘히로니마’가 어떤 이유에서 ‘수의주의’에 반대하느냐는 것이니까요. 이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어차피 문제를 풀 때 고생할 것이니, 시간을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야 해요.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②

① 오래 걸리더라도 자기 뜻대로 변화시킨 믿음은 수의적이다.

명시적 근거	1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즉각적으로!
해설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수의적’이라는 말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뜻대로, ‘즉각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래 걸린다면 그 믿음은 ‘수의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인’ 행위나 습관 형성을 통해 자신의 ‘믿음’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이것이 ‘수의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울스틴’의 주장을 통해서도 이 선지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느 쪽이든 확실하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② 원하는 대로 상상하는 것보다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어렵다.

명시적 근거	1문단 1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상상은 맘대로 해도, 믿음은 쉬운 일이 아니지.
해설	원하는 대로 상상하거나 또는 그렇게 믿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러한 내용을 1문단 3번 문장에서 물음의 형태로 제시했죠? 나아가 ‘원하는 대로’라는 요소가 포함된 ‘수의적 믿음’으로 논의를 확장시켰고, 이 ‘수의적 믿음’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주장들도 제시되었어요. 이는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지문의 화제와 직결되는 내용이니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③ 믿음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학문적 다툼이 없다.

명시적 근거	2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수의주의와 불수의주의의 의견 차이가 있지.
해설	믿음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뜻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그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만약 ‘불수의주의’가 옳다면 이 전제가 틀린 것이 되기에 ‘수의적 믿음’은 존재한다는 것이 ‘수의주의’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문적 다툼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평가의 대상=의무·책임’을 질 수 있음’이라는 재진술을 정확하게 인식했는지였습니다. 2문단의 내용이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원칙 하에 정리가 되었어야 해요.

④ 모든 불수의주의자는 심리적 근거에 기반해 수의주의에 반대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1번 문장, 4문단 1번 문장, 5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건 울스틴만이지.
해설	심리적 근거에 기반해 ‘수의주의’에 반대한 건 ‘울스틴’입니다. ‘윌리엄스’와 ‘히로니마’는 각각 ‘믿음의 개념 분석’, ‘수의성과 믿음의 정의’를 바탕으로 ‘수의주의’에 반대했었죠?

⑤ 칸트에 따르면 날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떤 인간을 비난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능력이 없으면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없는데?

해설	'칸트'는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

14.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인식적 수의주의 / ㉡ 인식적 불수의주의

- 이 지문의 두 축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문 전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다름없으니,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 ㉠은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라는 원칙을 믿음에도 적용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은 '칸트'의 원칙을 믿음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실하게 납득했던 내용이죠?

㉡ ㉡에 따르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뜻대로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수의적으로 그 믿음을 형성한 것이 아니다.

명시적 근거	1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수의적 믿음은 없다는 게 ㉡의 입장이지.
해설	㉡은 애초에 '수의적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울스탄'과 '윌리엄스', '히로니미' 모두 같은 입장이었죠? 가볍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은 모든 믿음이 수의적이라고, ㉡은 모든 믿음이 불수의적이라고 주장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최소한 어떤 믿음은 수의적인 게 가능하다는 것이 ㉠의 입장인데?
해설	㉠은 '최소한 어떤 믿음'은 '수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모든 믿음이 그렇다고 한 적은 없어요. 반대로 ㉡은 모든 믿음이 불수의적이라는 입장이구요. 결국 담백하게 개념의 정의를 묻는 선지가 정답으로 제시된 모습이에요.

㉣ ㉠과 ㉡ 모두,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내용이 참이라고 생각함을 전제한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애초에 믿는다는 것의 전제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라.
해설	1문단에서부터 '믿는다는 것'을 '참이라고 믿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과 ㉡ 모두 동

	의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아가 '울스탄', '윌리엄스', '히로니미'처럼 ㉡의 입장을 가진 이들 모두 '믿는다는 것'을 '참이라고 믿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확실하게 맞는 선지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	--

㉤ ㉠은 ㉡에 비해, 사람들의 믿음을 비난하는 우리의 언어 관행에 대해 더 직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은 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의 입장이지.
해설	㉠은 사람들의 믿음을 비난하는 우리의 언어 관행을 '칸트'의 원칙과 결부지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옳다면 그러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는 ㉠이 ㉡에 비해서 그 언어 관행을 훨씬 잘 설명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같은 시험을 앞두고 그간의 경험과 노력을 돌아보았다. 자신이 합격할 것이라고 믿을 근거와 불합격할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대등해 보였다. 같은 자신의 성격상 합격한다고 믿으면 덜 긴장해 실제로 합격할 것이라 생각했다. 같은 A 자신이 합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로 했고 그 믿음에 따라 시험을 치렀다.

-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보여야 합니다. 먼저 같이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믿을 근거와 불합격할 것이라고 믿을 근거가 대등해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울스탄'이 말했던 '증거력이 비슷해서 참·거짓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때 같이 합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은 그 순간 합격할 것이라는 근거가 조금이나마 더 그럴 듯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같이 자신의 성격상 합격한다고 믿으면 덜 긴장해 실제로 합격할 것이라 생각한 것은 전형적인 '태도 관련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로니미'의 주장이 떠오르면서, 이러한 이유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수의적'이지만 이것이 '내용 관련 이유'와 관련된 '믿음'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정리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 울스탄은, 만약 A가 진정한 믿음으로서 형성되었다면 근거 간 증거력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에요.
해설	'울스탄'의 주장을 바탕으로 미리 생각한 내용이죠?

② 윌리엄스는, 만약 값이 참·거짓과 무관하게 ㉠를 갖는다고 한다면 값이 있을 수 없는 능력을 갖는 셈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윌리엄스는 수의적 믿음의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
해설	‘윌리엄스’는 값이 참·거짓과 무관하게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는 ‘수의적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윌리엄스’의 주장과 정반대이니깐요.

③ 히로니미는, 값이 ㉠를 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에서 값의 믿음은 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보기>, 5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참을 목표로 한다는 건 믿음에 관한 것이지, 의지에 관한 게 아니야.
해설	‘히로니미’가 이야기하는 ‘참을 목표로 하는 태도’는 p라고 ‘믿는다는 것’의 정의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 자체는 ‘참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어요. ㉠ 자체는 ‘믿음’이니깐요. 하지만 선지에서 묻는 것은 값이 ㉠를 참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값이 ㉠라는 믿음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시험을 치르는 것은, ‘믿음’과는 무관한 의지에 따른 행위예요. 이것을 ‘믿음’의 정의인 ‘참을 목표로 하는 것’과 관련짓는 것은 ‘히로니미’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진술이 아니죠? 꽤 까다로운 선지였습니다. 결국 묻고자 한 것은 ‘히로니미’가 이야기한 ‘믿음’의 정의를 선지에서 묻는 것과 결부지어 생각할 수 있는지였어요.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이렇게 걸로 봤을 땐 딱히 틀린 게 없어 보이는 선지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히로니미는, ㉠를 가지면 실제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값의 생각은 믿음의 태도 관련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명시적 근거	<보기>, 5문단 3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역시 미리 생각했던 내용이죠? 이렇게 가볍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해요.

⑤ 윌리엄스와 히로니미는, 값이 설사 초인적인 존재라고 해도 ㉠를 수의적으로 형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6번 문장, 5문단 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수의적 믿음은 없다는 게 둘의 공통적인 입장이지.
해설	‘윌리엄스’와 ‘히로니미’ 모두 ‘수의적 믿음’을 가지

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둘 다 ㉠를 수의적으로 형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불수의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이니 가볍게 지워낼 수 있어야 해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④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 ⑤ 선지에서 묻는 것 : 모든 선지 판단의 시작은 ‘묻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특히 특정 개념에 대해 묻는 경우에는 그 개념의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원칙을 통해 최대한 재진술시키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수준의 지문이었습니다. 나아가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선지에서 묻는 것’을 정확하게 따져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죠? 어려워도 늘 묻던 핵심적인 부분만 묻고 있으니,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